

NC 첫 우승 비결... '데이터 야구' "강점 어필보다 항상 최선 다하는게 중요"

정규리그·한국시리즈 첫 통합 우승 이뤄내...

구단·지도자·선수 삼위일체 10개 구단 선택 아닌 필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첫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으로 '데이터 야구'는 이제 10개 구단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데이터를 공부하지 않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는 더는 프로야구 구단의 지휘봉을 잡기 어려운 게 대체로 자리잡혔다.

무명의 선수 시절을 일찍 접고 지도자의 길을 걷은 이동욱(46) NC

감독은 열린 자세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구해 집권 2년 만에 NC에 창단 첫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2018년 10월, 계약 기간 2년에 연봉 2억원, 계약금 2억원 등 총액 6억원을 받는 조건에 NC 사령탑에 오른 이 감독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해에 NC를 통합 우승으로 이끌고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바깥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감독은 2군 코치 시절부터 '공부하는 지도자'로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팀을 믿고, 정확한 숫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수용할 건 수용한다"고 운을 폈다.

이러 "예전보다 데이터 팀과 회의

가 많아진 편으로 여러 데이터 중 우리가 쓸 데이터의 방향성을 따진다"며 "선수단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면서 좀 더 근거 있는 지도를 할 수 있게 꽤 좋은 결과 나왔다"고 덧붙였다.

구단, 지도자, 선수가 데이터 수용에서 삼위일체를 이뤄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NC 사례를 본떠 LG 트윈스는 소통에 능하고 데이터 야구에도 거부감이 없는 류지현 수석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류 감독은 "앞으로 코치 회의 때 데이터 분석팀장이 참석해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야구로 구단의 체질을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김하성 MLB 도전 공식화 성공시 키움서 3번째 배출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유격수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이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다.

키움은 25일 KBO에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2019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다 득표로 유격수 황금장갑을 끼고서 해외 진출 의지를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KBO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전체 구단에 이를 공시하면 김하성은 그 즉시 30일 동안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키움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에 이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세 번째 선수를 배출하게 된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에 키움의 지명을 받아 KBO 리그에 데뷔한 김하성은 통산 7시즌 동안 89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4(3천195타수 940안타), 133홈런, 575타점, 606득점, 134도루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다장타력과 빠른 발을 갖춘 내야수로



1루로 질주하는 김하성.

연합뉴스

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하성은 "일부러 강점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병호 선배님은 평소에도 팀의 기동으로써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신다. 지금까지 선배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

다. 나를 포함한 후배들에게 보여준 행동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시즌 야구장에서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팬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한국시리즈에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창단 첫 통합 우승 후 '집행권'을 들고 세레머니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시즌 돌입

2021 FA자격 선수 공개

연말과 연초를 뜨겁게 달굴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곧 시작한다.

스토브리그의 핵심, 자유계약선수(FA) 시장도 열린다.

KBO는 25일 2021년 FA 자격을 얻은 선수 2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9명이다.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

한 선수가 3명이다.

KBO리그는 2021년 FA부터 '등급제'를 적용한다. 해당 FA의 2020년 연봉에 따라 보상 선수·보상금 규모가 달라진다. 이번 FA 자격 선수 명단에는 A등급이 8명, B등급이 13명, C등급은 4명이다.

두산은 총 9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내야수 허경민, 최주환, 오재일, 외야수 정수빈, 투수 유희관, 이용찬은 A등급이다. FA 자격을 재취득한 내야수 김재호는 B등급으로 분류한다.

허경민, 최주환을 향해서는 복수의 구단이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KBO리그 개인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양현종은 국의 진출을 추진할 전망이다. 혹시 양현종이 국내로 눈을 돌리면 FA 시장 태풍의 핵으로 돌변할 수 있다.

KIA 최형우, LG 트윈스 차우찬, 삼성 라이온즈 우규민, 이원석 등 여전히 팀 전력의 핵심인 베테랑 선수들도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선수들은 29일부터 국내의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연합뉴스

레이커스 다음 시즌도 '우승 0순위'

착실한 전력보강 2연패 발판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 우승팀 LA 레이커스가 착실한 전력 보강으로 2020~2021시즌에도 우승할 가능성을 부풀리고 있다.

윌리엄 힐과 비인, 스포팅넷 등 외국 주요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2020~2021시즌 NBA 우승팀 전망 보고서를 보면 LA 레이커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중이다.

예년보다 약 2개월 늦은 12월 23일(한국시간)에 2020~2021시즌을 개막할 예정인 NBA는 최근 자유계약선수(FA)의 이동과 트레이드 등 활발한 선수 이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LA 레이커스는 쓸쓸한 전력 보강으로 2연패 발판을 놓고 있다.

우선 2019~2020시즌 우승의 주역 '킹' 르브론 제임스는 나이를 한 살



르브론 제임스(왼쪽)와 데이비스. 연합뉴스

더 먹는 것 외에는 여전히 건재하다. 제임스와 함께 '원투 펀치'로 활약한 앤서니 데이비스가 자유계약선수(FA)가 됐지만 LA 레이커스에 남을 것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울산 진담 역전승 ACL 3경기 무패 선두

올해 프로축구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모두 준우승에 그친 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울산 현대가 2연승으로 조 선두를 달렸다.

울산은 24일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퍼스글로리아(호주)와의 2020 ACL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후반 26분 다니얼 스타인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후 김인성, 주니오의 연속 골에 힘입어 2-1로 역전승했다.

2일 11일 FC 도쿄와 1-1로 비기고 도하에서 재개한 뒤 첫 경기인 21일 상하이 선화(중국)와의 2차전에서 3-1로 이겼던 울산은 연승을 챙기며 3경기 무패(2승 1무)로 조 선두(승점 7)를 달렸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일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지구기록지는 20가지 예언 11:05 한국의 밤(재) 11:55 송타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로나19 대한민국 리아비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로나19 대한민국 리아비 2부 9:15 코로나19 대한민국 리아비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도도술술리(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땀땀 땀 9:40 생방송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2:10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 15:45 꼬마 히어로 슈퍼맨 16:15 핫도그랑 만물이불가요 16:30 땀땀 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다크 잇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TV쇼 진품명품(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14:45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6 15:00 미법소년 디디 15:30 열린채널 16:00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강극장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무패선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뭐래도 17:00 도도술술리 17:15 캐시 티키프 17:30 주연연예수첩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15 생방송 연극공연 720+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보보보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다크플렉스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날아라 개천용(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유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게 알려주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곁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에서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왕의 가느달 위인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의 밤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다크 인사이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펭 비틀리 21:30 도도술술리 22:10 나를 사랑한 스파이 22: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교백하지 않는 이유> 23: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5 테마기행 길 19:15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22:00 나를 사랑한 스파이 청년의 가능성을 제주의 내일로 23:4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18:50 김현철과 함께하는 유쾌한 음악회 1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뉴스브리핑 1부 21:35 영남의 광장 2부 22:05 영남의 광장 3부 22: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부 23:1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부 23:55 얼얼! 무비월드 스페셜	KCTV 7:00 KCTV 뉴스 8: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마스터 클래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제주 청소년 리포터 13:00 2020 제주포럼 14:00 공공예술지원 프로젝트 '남어, 연결하다' 16:00 2020 제주포럼 20: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마스터 클래스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6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노력하라. 48년 아랫사람과 의견 조율이 끝난 뒤 명예와 직결된다. 60년 잘 알지 못하면 잠깐하는 것은 삼가라. 망신수와 구설이 따른다. 72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면 좌불안석하게 된다. 84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증가한다.

42년 의기투합하고 협력할 일이 생기면 이익이 있다. 공동투자 창업도 있다.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참고 기다리니 관계가 좋으니 손실이 있다. 78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니 자금이 지출되고 응원은 공허하다. 90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37년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쓰이나 스스로 해결되지 않게 우려하지 마라. 49년 관청 승인이나 인허가권이 해결되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61년 활동력이 늘어나고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73년 친구의 선악이 깨지거나 관계가 서먹해진다. 85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감지 않다. 구설수 따른다.

43년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의중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한다. 55년 문서관련 재물운이 있으나 잘살피서 활동을 하라.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취업이나 직장문제에 희소식이 있다. 미혼자 이성교제 길. 91년 기록 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정판한다.

38년 사업에는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0년 부하직원과 공무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말기면 해결된다. 62년 어려움이나 친구나 동업자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4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하다. 86년 유희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기고 외모에 신경 쓸 일이 생긴다.

44년 구설수로 모임이나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 56년 계약 때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적인 일이 많아진다. 80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엔 교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92년 과음을 삼가고 운전 또는 밥질 조심하라.

39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 간에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5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3년 친구 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 좋다. 75년 교육·예능분야 운이 원만해지고 뜻하는 일이 해결된다. 87년 새로운 교제나 이성간 다툼이 오니 오늘보다 내일 만나라.

45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 57년 매마나 문서 계약이나 성사가 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69년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1년 지인의 도움이나 추천으로 취업이나 직장이 생긴다. 93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하라.

40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52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설계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64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76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88년 상사나 지인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금전운이 좋아진다.

46년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면 이익이 된다. 58년 신규창업에 좋고 기존 사업자는 매출이 증가된다. 70년 전문업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재물은 손실이 따른다. 82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느껴오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94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시비는 금물.

4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로 인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득도 따른다. 53년 급속부. 주유업은 분주하며 이익이 있다. 65년 직장이나 지인된 업무가 해결되고 있는 능력이 있다. 77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주변인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89년 사고력이 증가하고 이해득실을 생각한다.

47년 아랫사람과 관련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59년 과욕은 금물. 무리한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있다. 71년 내기 투기 도박에 승부를 걸면 손해가 심하니 자제하는게 유리. 83년 계획이나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95년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 외출시 음주 자제. 늦은 귀가는 금지.